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32주일(위령 성월)
제30권 50호(다해) 2010-11-7

[묵상]



성 안나의 임종 <베르나르디노 노키, 19세기, 유채, 성 프레디아노성당, 이탈리아>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삶
오직 현실만이 중요합니다.
현실의 풍족함, 힘, 편안함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나약함, 불편함은
큰 불행이었고 고통은 큰 벌이었습니다.

부활과 내세를 바라지 않는 삶
현실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를 희망하기에
지금, 여기서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허전하기만한 이 만족에 얽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삶
현실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지금 나의 불행과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지금 여기서의 만족과 행복 또한
영원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일과 저 세상 일을 구분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구분되어 보이지만
영원이신 하느님께서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현재가 영원에 닿아있습니다.
오로지 산 이들의 하느님이십니다. - 櫃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자모회 대견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파르미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박덕기 카타리나
	(생)케네스 안드레아 헤밀튼, 우정석 요한, 우현정 안젤라, 김태희,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주 일 낮 미사	(연)유광수 야고보 사제, 한병열 토마스, 김몽돌 요셉, 고준희 제임스, 윤춘의 스펀라스티카, 홍주희 안나, 이현호 요한, 최복덕 마리아, 김종환 야고보, 엄은섭 도로테오, 홍관 요셉, 이은완 야고보, 정숙희 헬레나, 서인수 요셉, 최우진 알렌, 김문희 요한, 이호예 안젤라, 모든 연령들, 정삼선, 황기진
	(생)김씨니 클라라, 김성택 프란치스코, 송호민 & 김나영 가정, 오현옥 발비나, 오성희 안젤라, , 주용범 아브라함, 김봉길 바오로 & 재희 모니카 가정, 이덕철 루카 & 순자 비비안나, 박혜경 레나타, 신현국 스테파노 & 도영옥 수산나, 홍석인 체칠리아, 문 밍티스타 수녀,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체

제 1독서 마카베오기 하권(2 Maccabees) 7,1-2,9-14

화답송 ○주님,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주 - 님,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 하 리 이 다.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여겨들으소서. 거짓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여 귀 기울이소서.○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놀라우신 당신 자애를 배푸소서. 당신 오른쪽으로
피신하는 이들을 적에게서 구해 주시는 분.○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주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보옵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제 2독서 테살로니카 2서(2 Thessalonians) 2,16-3,5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죽은 이들의 땅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비읍니다.○

복 음 루카(Luke) 20,27-38<또는 20,27.34-38>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곳 없어라. 푸른 풀
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46	182
봉헌	256	254
성체	Above All	288
파견	372	346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가증할 죄악인 낙태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볼 때 "살인하지 못한다."는 하느님의 계
명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생명은 탄생에 선행하는 초기 단계를 포함한 실존의 모
든 순간순간에 신성 불가침한 것이다. 모든 인간들은 어머니
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느님께 속한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인간들을 자세히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아시며, 당신 손수 그
들을 빚으시고 엮으셨으며, 그들이 형상조차 생기지 않은 작
은 태아일 때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 태아들 안에서 이미 장차
성인이 될 그들을 보신다. 그들의 날들은 이미 정해지고, 그들
의 소명은 지금 이미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시편
139,1.13-16 참조). 성서의 많은 대목들이 증언하고 있듯
이,23) 그들이 아직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그곳에서
도 하느님의 자비롭고 아버지다운 섭리의 인격적인 대상이다.
신앙교리성에서 발표한 선언이 훌륭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그
리스도교 전승은 초창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고도
일치된 목소리로 낙태를 특별히 중대한 도덕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낙태와 유아 살해가 널리 행해지
고 있던 그리스-로마 세계와 처음 만나던 그때부터, 가르침과
실천을 통해서, 그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관습에 철저하게 맞
섰다. 이것은 일찌기 디다케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
나고 있다. 그리스교회 저술가들 중에서 아대나고라스는 그리
스도교 신자들이 낙태 의술의 도움을 받은 여자들을 살인자로
여긴다고 기록하고 있다. 어린 아기들은 아직 어머니의 태중
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느님 섭리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라틴 저자들 중에서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렇게 단언한다. "출생을 막는 것은 살인을 앞당기는 것이다.
출생 전이거나 후이거나 별로 차이가 없다. 하나의 사람이 될
태아는 이미 그 사람인 것이다."

이천년의 그리스도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 교부들과 교황들과
교회 학자들은 이 동일한 교리를 항구하게 가르쳐왔다. 심지
어 영적인 혼이 들어오는 정확한 순간에 대한 과학적, 철학적
논의들조차도 낙태를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
게 만들지 않았다.

62). 더 최근의 교황 교도권은 이러한 공통된 교의를 강력하게
재천명했다. 특히 비오 11세께서는 당신의 회칙 Casti
Connubii에서 낙태에 대한 허울좋은 정당화를 물리치셨다. 비
오 12세께서는 모든 직접적인 낙태, 예컨대 "생명의 파괴가 목
적이든, 아니면 단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든" 직접적으로
태중의 인간 생명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진 모든 행위를 물
리치셨다. (◆계속)

산 이들의 하느님

오늘의 말씀은 “부활”이라는 주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독서는 마카베오기 하권의 내용으로 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 유다지역에 영향을 미친 나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과 셀레우코스 왕국이었습니 다. 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의 순교 이야기는 셀레우코스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가 강한 군사력으로 유다지역을 제압하려고 하자 그에 대항하여 유다의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려는 마카베오 가문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기를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앞에 끌려온 어머니와 일곱 아들들은 모세의 율법을 여기라고 강요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율법을 여기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하며, 짧은 신앙고백을 남기고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 넷째가 남기는 마지막 신앙고백을 오늘의 마카베오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소. 그러나 당신은 부활(ANASTASIS)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이 없소.”

사실상 “부활(ANASTASIS)”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카베오기 하권의 7장과 12장 정도에서 명확한 의미로 사용된 “부활”이라는 용어를 두세 번에 걸쳐 만날 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신학이 처음부터 부활에 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부활”이란 새로운 시간 즉 “종말”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스라엘이 깨닫게 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학적 희망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이 “부활”이라는 새로운 신학적 희망을 수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시대를 전후한 유다사상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사두가

이라는 유다의 사제그룹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루카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사두가이에 속하는 몇 사람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율법을 따르면 어떤 여인이 일곱 형제와 차례로 결혼하는 것이 가능한데, 부활이 있다면 그 여인이 누구의 부인이 될지 애매한 상황이 생길 것이고, 따라서 하느님이 그와 같은 율법을 주신 것은 부활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그들의 논리에 답하십니다. 첫째는 부활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될 하늘나라에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모세가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이 모두 죽고 난 후인데도 모세가 하느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죽어 사라진 것이 아님을 말한다는 유다적 논리전개가 그 문장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결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부활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 이시라는 예수의 선포(Kerygma)입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의 삶에 집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세상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을 풍요롭게 나누고 누리라는 복음의 요청입니다.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팅	이호미 엘리사벳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진향 아네스	신덕례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이순자 비비안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7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 "마르띠노 신부님, 영평일 축하드립니다."

11월11일(목)은 투르의 성 마르피노 주교 기념일로 우리 본당 이장환 마르피노 신부님의 영명일입니다. 부임하신지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신자들을 돌보시기에 역년이 없으신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축하 모임은 오늘 주일(7일) 낮미사 후 친교장에서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과 성모회가 맛있는 점심을 전교우들에게 대접하오니 많이들 참석해주십시오. 그리고 익명의 교우께서 고기를 도네이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Theme)' 공모

2011년 2월6일로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아 어떤 주제 (Theme)를 행사표어로 삼을 것인지 교우 여러분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내용을 예를 들면 영적성숙, 감사, 일치, 미래지향 등...을 표현한 것이면 되겠습니다.

- 공모 마감 : 11월 28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
-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소년소녀 레지오 마리에 창단

- 프레시디움(Pr.) : ‘그리스도의 어머니’
- 첫 주회 : 오늘 주일(7일) 오후 1시 회의실

◆ 성모회 된장, 고추장, 새우젓 판매

- 일시 : 11월14일(주일)
● 판매에 필요한 빈병(작은 김치병 크기 등)을 수집합니다.
택에서 쓰지않는 병을 많이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성모회장 최옥희 테러사 ☎(310)508-2912

◆ 신앙수상집 '하느님의 지혜' 배부

본당교우 송종두 요한 형제(교육심리학 박사)의 신앙수상집 '하느님의 지혜'가 발간되었습니다. 11월14일(주일) 미사후에 성당 현관에서 무료로 배부하오니 한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1월 위령 성월

◆ 남가주 한인가톨릭 합동위령미사

- 일시 : 13일(토) 오후 1시30분-합동연도, 2시-미사
- 장소 : Holy Cross Cemetery
- 주관 :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

◆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시편 67:7)

- 일시 : 11월2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El Dorado E. Regional Park(7750 E. Spring St. Long Beach CA 908150)
- 주례 : 로저 마호니 추기경
- 2부행사 : 각 성당대향 민속놀이
- 주최 :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이날 본당 평일미사(목 7:30pm) 없습니다.

◆ 백삼위 성당 여성 회정

- 주제: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사야 49,16)
- 일시/장소: 11월20일(토)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성당
- 대상: 백삼위에 다니는 여성교우
- 접수: \$5(점심식사 제공) 사무실 또는 여성계단채장
- 신청마감: 11월14일(주일)

◆ '사랑의 영수증 모으기'

- 한남체인 토렌스점에서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사랑의 영수증 모으기'에 본당 교우들의 호응으로 매월 \$300~\$400 (전체구매액의 1%에 해당)의 할당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월분 \$400이 입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1월7일(주일): 신부님 영명축일을 맞아 성모회가 전 신자들에게 갈비탕을 대접합니다.
- 11월14일(주일): 토런스 남 1반(소고기 국밥 \$3)

7.1 날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김양금 박근식 엄세종 이근태 이인석 조준제	강인모 김영길 박종민 오세원 이민상 이현주 한혜숙	국세찬 김완태 박종열 오수인 이병우 이희영 홍석인	김교복 김일선 배태임 오일순 이상규 장영진 황지영	김미현 김충섭 신경훈 유영균 이석진 정상문 이크리스	김병태 노찬술 신순철 이경용 이영희 조윤영	합계 : \$5,590
미사헌금 : \$2,843							

성전헌금	강순복 김일선 엄세종 이민상 이현주 홍지영	강인모 김충섭 오세원 이병우 이희영	국세찬 노찬술 오수인 이상규 정상문	김교복 박종열 유영균 이석진 조준제	김양금 신경훈 이경용 이영희 한혜숙	김영길 신순철 이근태 이인석 홍석인	합계 : \$2,300
주보광고후원 : 로미타양로보건센터, 크리스리부동산							

◆ 배론 청년회 회원 모집

"평범한 신앙생활은 거부하고 있는-데~"

- 청년이세요?
- 혼자 미사드리기 심심하세요?
- 토요일 밤을 뜻깊게 보내고 싶으세요?
- 주님과 함께하는 배삼위 청년회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 * 모임일시 및 장소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성당 강당
- * 문의 : 이상용 엘리야 청년회장 ☎(310)650-6057
- 박소영 프란체스카 부회장 ☎(323)313-7255

◆ 본당 비품은 우리 모두의 것, 관리를 잘 합시다.

모든 교실의 책상과 의자는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아주시고, 교실 사용 후 책상은 원래 놓여있던 모양대로 제자리에 놓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문닫기와 불끄기, 에어컨, 히터 등 사용후 관리를 잘 합시다.

노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전화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야나 920-5153	배태임 안나 11/12(금) 오후 7시	781-9199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김정웅 요한 11/12(금) 오후 7시	530-7702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11/12(금) 오후 8시	854-9407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교복 레오 11/12(금) 오후 7시	328-1817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인두 토마스 11/13(토) 오후 6시	619-7763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진영선 크리스티나 11/8(월) 오전 10시30분	212-7543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남구역 1,2,3반 합동 반모임 11/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합동 반모임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합동 반모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차인수 안드레아 11/12(금) 오후 7시	256-6001
	3	대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김금자 테레사 11/13(토) 오후 7시	800-3939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귀분 안나 11/20(토)	518-1736
P. V. 김명재 아카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송근섭 발렌티노 11/12(금) 오후 7시	384-3289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11/13(토) 오후 6시	541-3687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11/12(금) 오후 7시	377-7063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김전제 바오로 11/9(화) 오전 10시30분 성당	541-5840

남가주 소식

◆ 故 이태석 신부님의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 영화상영

아프리카 오지 수단 톤즈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한국의 슈바이처' 고 이태석 요한 신부님이 남긴 사랑의 감동 드라마.

- 일시 : 11월18일(목)까지 상영
- 장소 : CGV영화관(구 우래옥 자리 621 S. Western, LA)
- 주관 : 아프리카 희망후원회(회장 김효근 야고보 신부)
- * 상영시간 문의 : ☎(213)258-8665

◆ 제8차 남가주 한인 가톨릭 청년연합회 성경퀴즈 대회

- 일시 : 11월13일(토) 오후 6시~10시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성당(2040 W. Artesia Bl. Torrance)
- 대상 : 남가주 전역 천주교 청년회
- 문의 : 본당 청년회장 / 정혜린 요안나 ☎(714)329-5237

◆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연주회

- 일시 : 11월27일(토) 오후 7시
- 장소 : LA 그레고리 한인천주교회(922 S.Bronson Av.)
- 주관 : 미주 평화의 모후 선교회
- 문의 : ☎(323)935-3429

◆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에 따른 1일 피정

- 일시 : 12월11일(토) 오전 9시30분~오후 5시
- 주제 : 묵상과 관상기도
- 지도 : 정규환 예수회 신부(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저자)
- 장소 : 로올라 매리마운트 대학교
- 문의 및 신청 : (562)233-7163 최 아우렐리아

이번 주 단체 모임

본당 신부님 영명일 축하식	낮미사 후 친교장
----------------	-----------

다음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11월, 삶과 죽음을 묵상하는 위령 성월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

한국 천주교 대구 대교구청 내에 있는 성직자 묘지 입구의 양쪽 기둥에는 "Hodie mihi, Cras tibi(사진 :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라는 라틴어가 새겨져 있다. 죽음 이멀리 있지 않고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뜻이다.

가톨릭교회는 11월을 '위령 성월'로 정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한다. 성 암브로시오 주교는 "눈물을 줄이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운다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당신을 떠난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였다. 가톨릭 신자들은 11월 한 달 동안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 친지, 그리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한다.

위령 성월은 자비와 자선 활동과 더불어 기도와 속죄로 '묵은 인간'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갈아입고자 힘쓰는 시

기이다 : "네 모든 행동과 네 모든 생각에서 네가 오늘 죽게 될 것처럼 너는 행동해야 할 것이다. 네 양심이 편안하면, 죽음을 몹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는 죄를 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오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일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준주성법』 1,23,5-8).

교황들은 '위령의 날'이 들어있는 위령 성월에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였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정성껏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자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성경에는 '연옥(煉獄, purgatorium)'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죽은 후 하느님과의 영원한 일치를 이루도록 정화되는, 곧 천국과 지옥(地獄, infernum)과의 사이에 있는 상태 또는 장소를 말한다. 연옥의 영혼은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벌을 견디는 것만으로 정화와 속죄가 된다. 그 기간과 고통이 신자들의

기도와 희생에 의해서 단축 또는 경감된다. 정화가 끝난 영혼은 곧장 천국으로 들어간다.

☞ 11월1일, 모든 성인의 대축일 미사를 드렸습니다. '성인의 통공'이란 무엇인지 다시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바칠 때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통공(通功)이란, 공(功)이 서로 통(通)한다는 뜻입니다. 즉 공로와 선행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과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이들, 그리고 연옥에서 단련 받고 있는 이들이 모두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기도와 희생과 선행으로 서로 도울 수 있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통공의 신비는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속죄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천국에 있는 성인들을 공경하며 우리도 그

들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미 돌아가신 성인들께 기도를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성인들의 통공"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바치는 연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나 선행의 대가가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나 연옥의 다른 이에게도 모두 통하기에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임종하면서 "울지들 마시오. 죽은 후에 나는 여러분에게 더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 있을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고, 소화 데레사 성녀도 임종 때에 "저는 하늘로 올라가 땅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하겠습니다."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22-23).

◀자료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정보마당▶

